

담양군, 지역상품권 모바일 결제 5% 추가 적립

오늘부터 연말 예산 소진까지 모바일 1000원 이상 결제 시 기존 선 할인 정책 병행 활성화 관내 착한가격업소 14곳 등

담양군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13일부터 올 연말 예산 소진 시까지 특정가맹점에서 '담양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QR)' 1000원 이상 결제 시 결제 금액의

5%를 추가 적립하는 정책 시행에 나섰다.

정책은 지류 상품권이 아닌 모바일 결제 시에만 추가 적립이 가능하다. 군은 기존 담양사랑상품권의 선 할인 정책과 병행 진행해 소비자가 정책을 조금 더 체감하고 가맹점 이용 활성화를 이뤄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12일 담양군에 따르면 추가 적립 대상 가맹점은 착한가격업소 14곳과 담양읍 중앙로와 메타프로방스 내 소상공인 전

기로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일부 가맹점 100여 곳이다.

중앙로 또는 메타프로방스 내 가맹점이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 시 금액의 최대 10%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적립 금액은 선할인으로 구매한 담양사랑상품권 잔액과 함께 이용 가능하다.

모바일 담양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 30만원과 최대 보유한도 150만원 기준은 동일하므로 상품권 보유액이 150만원이 넘으면 추가 적립되지 않는다.

보유한 담양사랑상품권과 적립 금액을 합산해 이용할 시 모바일 앱 '착(chak)'에서 캐시백 이용을 활성화해야 하며 참여 가맹점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담양사랑상품권 추가 적립 정책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9월 정기본 재산세 납부 당부 화순군, 이달 30일까지

화순군은 2024년 9월 정기본 재산세 5만1428건에 80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9월 정기본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주택 재산세는 재산 세액이 20만원 초과 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고지서는 11일부터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전화(061-379-3383)로 재발송을 요청할 수 있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CD/ATM, 농협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사이트, 위택스 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최기운 재무과장은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곡성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물품 구매 비용 지원 등

곡성군은 지역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중 행정안전부가 정한 가격, 위생, 공공성 등의 기준을 충족한 곳을 말한다.

모집 대상은 외식업, 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업체로 프랜차이즈업소와 법인은 제외된다.

선정된 업소는 지정확인서와 인증서 교부, 운영 물품 구매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곡성군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 세부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물가상승 압박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업소들에 감사드린다"며 "이 사업이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화순군 한천면 환경보존위원회 회원들과 화순군 한천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금전 저수지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한천면, 추석맞이 대청소 활동

화순군 한천면에서 지난 11일 한천면 환경보존위원회(대표 이길척), 행정복지센터 등 30여 명이 참석해 추석맞이 대청소를 진행했다.

12일 화순군 한천면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먼 주요 도로변 및 금전 저수지 일대 생활쓰레기와 불법투기 폐기물 등을 수

거하여 추석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했다.

추석맞이 대청소는 미관과 안전을 저해하는 칩덩굴 제거 작업을 병행했다.

수거된 쓰레기는 약 5톤으로 한천면행정복지센터는 앞으로도 깨끗한 한천면을

만들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환경정화 작업과 캠페인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민영에 화순군 한천면장은 "폭염에도 추석맞이 대청소에 참여해 주신 지역 단체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한천면이 화순군 대표 청정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군,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

화순군은 지난 11일 화순초등학교 등 곳곳 주변에서 '아이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고 12일 밝혔다.

화순군의회, 화순경찰서, 화순교육지원청, 화순초등학교, 안전보안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8개 기관단체 100여 명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 배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합동으로 실시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아이 먼저' 리플릿과 홍보 물품을 배포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 속도 지키기, 불법 주·정차 금지, 무단 횡단하지 않기, 횡단보도 건널 때 좌우 살피기 등 운전자와 학생이 지켜야 할 교통안전 수칙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구북읍 화순군수는 '아이 먼저' 캠페인 화순군 홍보 영상에 '어린이 안전이hero즈'와 함께 출연해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안전수칙 홍보에도 앞장섰다.

조영권 화순군 주민안전과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주의와 배려가 필수적이다"며 "모든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춤, 교통 법규를 철저히 지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함평군 실내수영장, 공정률 97% 10월 개관 목표 '순항'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일원에 조성 중인 '함평 실내수영장'이 오는 10월 개관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2일 함평군에 따르면 실내수영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2624㎡ 규모로 조성되며 성인용 풀 6레인과 유아용 풀 등을 갖추고 있다. 총사업비는 137억 원이 투입되고 약 2년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됐다.

현재 안전관리요원과 환경정비원 등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완료했으며 10월 준공 이후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함평 실내수영장 개관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여가선용 기회 확대 등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본 사업이 많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세부 작업과 안전시설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신재현 기자

나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고용 신청

나주시는 2025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와 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용 및 참여 신청은 오는 10월 10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이다. 영농철 고질적인 농촌 인력난 해소는 물론 임금 절감 효과가 있어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가에선 계절 근로 단기 취업(C-4비자·90일), 계절근로자(E-8비자·5개월) 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민선 8기 들어 농촌 인력난 해소의 핵심 열쇠가 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에 주력해왔다.

현재까지 베트남, 몽골, 필리핀 3개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2022년 32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3년 354명, 올해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참여자를 포함해 650여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인건비 절감액은 약 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가 경영 안정에도 큰 보탬이 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조건을 살펴보면 2025년도 최저임금은 1일 8시간 노

동 기준 임금 8만240원이다.

농가에선 최저임금 준수와 더불어 숙식비(월금액 8~20%공제) 제공, 근로기준법,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안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농가 한곳 당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 배정 인원은 재배작물, 면적 등에 따라 상이하다.

나주시는 농가 신청을 받은 후 법무부에 10월 중 도입 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11월 중 법무부 심사를 거쳐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내년 3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추진한다.

나주=김용의 기자

화순열린도서관, 제4기 문화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화순열린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제4기 문화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일반 대상으로는 △마음을 위로하는 책, 유아 대상으로는 △오감톡톡 아기 오감 놀이 △그림책 남남 △미술로 놀자 6개 강좌에 총 65명을 모집한다.

4기 문화프로그램은 10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11주에 걸쳐 진행된다.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화순열린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무료지만 재료비와 교재비는 수강생이 부담한다.

화순열린도서관 제4기 문화프로그램

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청 군민종합문화센터팀(061-379-3966)에 문의하면 된다.

강삼영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영유아가 오감 능력을 발달시키고 양육자와의 친밀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평생 독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진일보 @ji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